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8. 10	08. 17	08. 24
대 표 기 도	윤미경 자매	이에준 형제	최종열 성도
성 경 봉 독	윤미경 자매	이에준 형제	최종열 성도

교회소식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성경공부 - 청년회 대상 6주 예정 신청받습니다.
4. 목회자 모임(6일) - 함부룩 소망교회(노환영 목사 시무)에서 모입니다.
5. 금요기도회 - 매 주 금요일 저녁 7시 음대 강의실에서 모입니다.
6. 나눔의 시간 - 이윤선, 최종열 성도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동정

생일	인동 ThieBen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감사헌금	
십 일 조	
합계(Euro)	
온라인헌금(7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HanMin Gemeinde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20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이상호 목사
성경봉독 Predigttext	겔 1 : 1 - 3(구p1151) (Hesekiel 1:1-3)	정환영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주님의 영광을 보라!	이상호 목사
성찬식 Abendmahl	보혈을 지나, 막14:22~26	담임목사
*파송찬양 Abschlussslied	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성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성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을 위해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 백승민 자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4.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5. 김선택, 장보경(헝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에스겔과 다니엘은 모두 바벨론에 끌려간 전쟁 포로였지만 그 삶의 자리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에스겔은 끌려온 유대인 포로들과 더불어 그발 강가에서 밀바닥 인생을 살았지만, 다니엘은 전쟁 포로면서도 왕궁에서 살다가 바빌로니아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에서는 다니엘은 금 그릇, 에스겔은 싸구려 질그릇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다니엘이 왕궁 속에 심어 두신 하나님의 그릇이었다면, 에스겔은 유대인 포로들을 위해 심어두신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에스겔과 다니엘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절대적 가치를 지닌 귀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만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식들도 원 위에서 키워야 합니다. 한 방향만 향하는 세상의 직선 위에서는 모든 사람이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가 매겨지기 마련이지만, 원은 360도 열려 있습니다. 360도라 해서 원 위에 삶의 길이 360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열려 있는 원에는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부르심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녀들이 자기 삶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어줄 때에만,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예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헌신, 희생, 봉사, 섬김의 덕목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 이재철 목사(100주년 기념교회 은퇴)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신비적 경험과 영적 체험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2.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경험을 나눠보세요